획득실장 주재 방산간담회 열려

항공/유도/통신전자분야 방산 발전방안 모색

국방부는 4월 30일 국방회관에서 최동진 획득실장 주재로 항공/유도/통신전자분야 20개 방산업체 대표와 국방부 관계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 현장의 소리 청취 및 방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산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책설명에서 국방부는 방산육성기금 일몰제 시행, 물가조정단가계약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 등 방산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진행된 획득실장과 방산업체 대표간의 자유토론에서는 방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상호 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산업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최동진 획득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군은 21세기 신국방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화·과학화된 선진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자주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공/유도/통신전자야말로 최첨단 과학 기술이 총집합된 분야로,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방산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방부주관 방산간담회 활성화 계획(연2회→연6회)에 따라 작년 12월 화력/탄약분야, 금년 2월 함정/기동분야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향후 이를 통해 방산업체와 정부간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학 정찰차 출고식 열려

실시간에 세균 존재 탐지 및 종류 식별 가능

생물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세계 최첨단 생물학 정찰차가 순수한 국내기술로 개발되어 출고됐다.

대우종합기계는 권영효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합참, 관계기관 요원 및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경남 창원 공장에서 생물학 정찰차의 출고식을 갖고 운용시범을 보였다.

생물학 정찰차는 장차 세균전에 대비, '95년부터 진행 돼 온 국방과학연구소 핵심기술 연구결과와 작년 9.11 테러 이후의 군·산·학·연 공동의 노력으로 사업승인 후 탐색개발 과정없이 곧바로 체계 개발에 돌입해 5개월 만에 장비가 개발되었으며, 올해 개최되는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 등 주요 국제 행사에 생화학 대테러용 장비로 운용될 예정이다.

개발장비는 탄저균 같은 세균이 살포되면 실시간에 세균의 존재를 탐지하고 정확한 종류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장비로 현재 이와 유사한 장비는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국산 장비에 탑재되어 있는 유전자 식별기는 세균의 DNA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세균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첨단 장비이며, 또한 여러 종류의 세균을

■ 주요 구성품 및 성능

구 분	성 능
공기수집기	분당 1000ℓ의 공기를 빨아들여 공기 중 포함된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만 수집, 이를 액상 시료화해 탐지기로 자동이송
생물학 탐지기	미생물과 독소를 구분해 탐지한 후 그 결과를 모니터에 표시
유전자 식별기	유전자 증폭후 DNA 염기서열을 자동분석 (1시간 이내 95% 이상 식별)
기존장비	현 화생방 정찰차량 이용

동시에 식별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공기수집기는 한양대 나노기술연구소와 국과연이, 탐지기 및 유전자 식별기는 (주)바이오니아와 국과연이 공동 개발했으며, 탑재차량과 체계 종합은 대우종합기계가 맡았다.

특히 외국장비와 견줘도 결코 손색 없는 앞선 기술을 적용하였는데, 식별기의 경우 대부분의 외국 장비가 세균의 항원항체에 의한 판별법을 쓰고 있는 데 비해 생물학 정찰차는 유전자를 증폭한 후 DNA 염기서열을 자동으로 분석·식별하는 첨단 식별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기수집기·생물학탐지기·유전자 식별기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외국과는 달리 생물학 정찰차는 모두 컴퓨터와 연동시켜 자동화체계를 이루고 있다.

금번 개발 성과는 대당 가격이 4억~5억원으로 미국제 장비에 비해 1/4에서 1/5에 불과하며 순수 국내 기술진에 의해 이루어져 향후 민수용 유사장비 개발은 물론 수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30대 안팎의 생물학 정찰차를 확보해 월드컵 개최 기간동안에는 전 경기장에 배치하여 불순분자의 생물학 테러에 대비하고, 그 이후에는 육·해·공군의 주요시설에 배치하여 생물학테러 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